

녹색연합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 앞장 미군의 한강 독극물 폐기사건 폭로

녹색연합은(상임대표 박영신-한국사회학연구소 부소장) 91년 창립된 '배달환경연구소'와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모임'이 모체가 되어 94년에 통합, 96년 '녹색연합'으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른 환경지킴이이다.

녹색연합은 97년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운동'을 펼쳐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군의 한강 독극물사건을 폭로하여 SOFA개정 의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녹색연합은 인간과 자연이 생태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열어가길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녹색연합은 최근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한 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연합이 출범한 경과와 동기는?

▶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있어 왔고, 80년대에 들어 '환경공해연구소', '반공해운동협의회' 등이 만들어지면서 당시의 환경운동을 주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87년 6월 항쟁 이후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서서히 종식되고, 90년대 초반 소위 '문민정부'와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태동되고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운동은 반체제운동이나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행되어, 시민사회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운동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일정 정도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고서는 시민운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91년 발족 '배달환경연'이 모체

녹색연합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창립되었습니다. 1991년 6월 '배달환경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이 창립되어 각기 독립적으로 활동해 오다 1994년 4월 '배달녹색연합'으로 재창립하면서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와 배달환경클럽, 그리고 푸른 한반도가 통합해 본격적인 전국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1996년 '녹색연합'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녹색연합의 성장에서 보듯 그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분명히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순수 민간환경단체들 중 95% 이상이 90년대에 설립되어 그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지만 환경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요. 운동의 초기단계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이에 대항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력했다면, 그 다음에는 운동의 전문화에 주력하는 단계로 보다 조직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운동단체들의 운동성과 접합시켜 운동의 전문성을 고양시켜 나갔습니다. 동시에 소수 큰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던 환경운동이 소규모의 다양한 운동단체가 만들어짐에 따라 운동의 내용과 형식도 다양해지고, 연대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지방의제 2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전 비판적·적대적인 정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우호적·동반자적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녹색연합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NCSD, National Council of Sustainable Development)가 구성되면서 정부와 비판



2000년 8월, 울산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에 항의하여 불평등한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 모습

자적 동반자 관계가 훨씬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실현

환경운동이 이 짧은 시간에 그만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내부적으로는 환경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매 시기마다 그에 적절한 이슈 개발, 여론화 작업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환경운동가들이 갖는 전문성에도 기인합니다. 거의 모든 환경문제들은 환경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그 대안이 제시되었지 아직 정부에 의해 제기된 예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다음 외적인 요인으로 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환경과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관련 국제회의나 협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언론 매체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각종 국제회의와 협약은 환경문제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구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이를 전달하는 언론매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다만 그 언론의 역할이 만족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자연 환경은 물론, 생활 환경도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훼손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환경운동의 기본정신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함께 살아야할 공존과 평

등, 평화의 가치가 있다는 철학을 전제로 합니다. 자연생태계를 사람의 생활양식에 맞게 개조하고 파괴하는 것은 이 기본정신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결국 우리들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 피해자가 되게 하지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은 이미 희귀한 일이 아니며, 무차별적인 산림파괴는 대규모 홍수로부터 사람을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육지의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갯벌을 잃은 바다는 생활폐기물과 기름오염으로 쌓여 더 이상 건강한 수산물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화학물질들은 국토 전체를 매립지로 만들어 버릴 뿐 아니라, ‘환경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내뿜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피해 이외에도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우리들이 잃어가는 정신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은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고, 왜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지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손실일지도 모르죠.

■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입니까.

▶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물질적인 기반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시민운동이 잘 발달한 선진국들처럼 아직은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이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운영상의 곤란을 겪게 되는데, 적은 활동비에 과다한 업무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두번째로는 환경철학이 부족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전문가 부족·재정적 어려움 심각

경제위기에 밀려 더욱 축소된 환경에 대한 의식과 환경정책의 부재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부추기고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환경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인데, 아직은 환경적인 철학



2000년 11월,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내복입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을 가진 전문가들이 그리 많지 않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선뜻 시민운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 그간 녹색연합의 활동 중 기억될 만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97년 초에 있었던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활동'입니다. 비공식 루트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 6명의 녹색전사단을 대만에 파견했었지요. 당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던 그 사건은 대만전력공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녹색전사단 6명이 폭행 추방당하고, 추운 겨울날 광화문 한가운데서 한달 동안 거리농성을 한 것을 시발로 국내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결국 계획 자체를 유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열기를 불러일으켰던 '미군의 한강 독극물 사건' 폭로를 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보력에 놀라움을 가지게 했던 그 일은 오랫동안 성역으로 되어있었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를 밖으로 끌어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운 겨울 명동 한가운데서 기자들의 취재열기를 돋우었던 '내복입기 캠페인'도 있는데, 이는 에너지절약의 한 방법으로서 사라져가고 있는 내복을 입어 겨울철 실내온도를 낮추자는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정서적인 추억과 결합되어 좋은 캠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우리 국민들이 환경운동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단지 물을 적게 쓰고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일뿐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작고, 소박하고, 느리고,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환경운동입니다.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의 변화를 토대로 사회적인 실천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인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습관 개혁이 가장 중요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혼자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교육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금은 어렵겠지만 정부의 환경정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도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눈이 정부정책에서는 가장 무서운 채찍이기 때문인데,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 이제 21세기를 맞은 녹색연합의 사업도 또 다른 차원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20세기는 성장제일주의와 개발패러다임에 의해 환경문제가 인류의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으며, 자연에 대한 일방적인 정복과 파괴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이루어져 지구환경의 위기를 가져 왔습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인간과 자연이 생태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생명평화운동의 본격적인 전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는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총력 투쟁, 미군 환경문제 및 SOFA 개정운동, 유전자조작식품 등 생명안전에 관한 활동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대안있는 환경운동'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녹색연합의 특징적인 사업인 생태마을 만들기, 생태도시 만들기, 대안에너지 보급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생태계 보호활동'입니다. 녹색연합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백두대간 살리기운동, 야생동물 살리기운동, 갯벌보전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⑤7

송해영 <본지 객원기자>